CEO Information

2006.11.15 (제578호)

영어의 경제학

목차

요약

Ⅰ. 영어 투자의 '고비용-저효율' 현상

Ⅱ. 영어 투자의 기대효과

Ⅲ. 영어 투자의 효율화 방안

작성 : 전효찬 수석연구원(3780-8072)
serijhc@seri.org
최호상 수석연구원

감수 : 김경원 연구위원(3780-8040)
alexkkim@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 요 약 》

영어는 지식기반사회의 중심 언어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세계 인구의 8%이지만, 지식창조의 중심인 대학이나 지식전달의 주요 수단인 인터넷, 학술저널 등에서 차지하는 영어의 비중은 압도적이다. 또한 영어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공용어로서, 기업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언어로 자리잡고 있다. 이렇듯 영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와중에 한국은 영어학습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나, 영어구사 수준은 만족스럽지 못한 '고비용-저효율'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본격화되는 글로벌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영어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기'를 국가 차원의 경쟁력으로 격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개방을 통한 성장을 지향하고 있는 한국은 영어에 대한 투자를 통해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영어에 대한 투자를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글로벌 기업이 영어로 소통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는 경우 지역본부, 연구개발, 금융 등 핵심기능의 국내 유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한국 기업의 현안인 글로벌 전략의 고도화를 위해서도 언어 장벽의 극복이 필수적이다. 둘째, 개인 차원에서는 한국인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글로벌 고급 인재 시장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현상을 타개할 수 있다. 국제화된 인력이 많아진다는 것은 한국 노동력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셋째, 언어 장벽의 극복은 '한류의 글로벌화' 등 문화·지식 산업의 세계진출과 한국 문화나 학문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영어학습의 '고비용-저효율'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투자효과 극대화'와 '투자비용 절감'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우선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모범적인 영어학습체계를 구축한 북유럽 국가의 사례를 참조하여 초중고교의 영어교습법을 개선하고, 영어 학습의 성취도를 높여야 한다. 대학의 경우 영어 학습보다는 '영어 사용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영어강의의 비중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대학의 '안으로 열린(inbound)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한다. 영어 사용 환경의 조성을 위해 영어의 '상용어화'도 필요하다. 상용어화는 '공용어화'와는 달리 제한된 지역이나 장소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비용의 절감' 측면에서는 '글로비시(Globish)'의 확산 등 저비용으로 기본적인 영어 구사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영어 투자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동번역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영어 번역이나 통역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영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영문 정보나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투자비용의 절감은 결과적으로 영어격차(English Divide)를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영어 투자의 '고비용-저효율' 현상

영어는 지식기반사회의 중심 언어

□ 영어는 '지식'이 가치창조의 중심이 되는 지식혁명 시대의 중심 언어

- 전 세계에서 영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인구의 비중은 8%이나, 지식의 창조 및 확산 과정에서 차지하는 영어의 비중은 절대적
  - ·영어는 영미권의 언어를 넘어서서 세계어로서의 위상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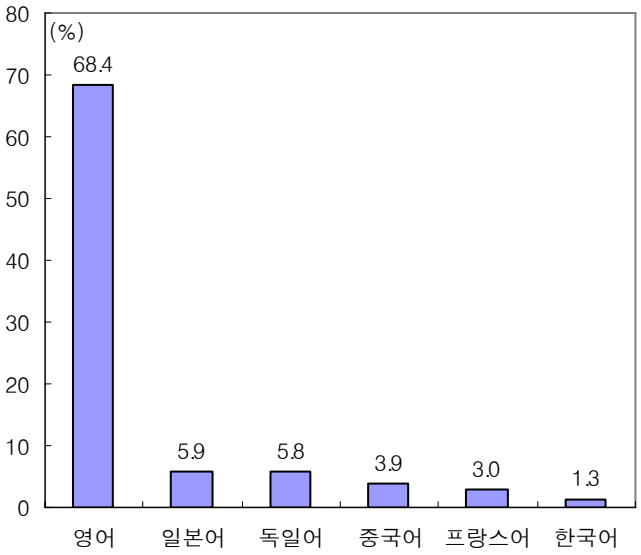
- 지식 창조의 중심에 있는 세계 100대 대학 중 영어권에 속한 대학이 75개에 이름[1)]

- 지식의 외부 확산 및 습득 과정에서도 중심 역할을 수행
  - ·인터넷 정보의 약 70%가 영어로 표현되어 있고, 각종 학술 저널 역시 영어권에서 발행되는 저널의 비중이 압도적

지식사회에서의 영어의 위상

	언어	수	비중
SCI 등재 저널 수 (자연과학)	영어권	2,766	73%
	非영어권	1,007	27%
SSCI 등재 저널 수 (사회과학)	영어권	1,636	85%
	非영어권	293	15%
세계 100위 내 대학 수	영어권	75	75%
	非영어권	25	25%

언어별 인터넷 컨텐츠 비중



자료: 대학순위는 *Newsweek*(2006.8.14), 저널 등재건수(2006년 9월 현재)는 인포넷 그룹, 인터넷 상 언어 비중은 Global Reach, "Global Internet Statistics by Language", 2004

1) *Newsweek*가 Times Higher Education Survey, 상하이 자오퉁 서베이 등이 실시한 대학의 경쟁력 평가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결과(*Newsweek*, 2006.8.14)

한국의 고민 : '고비용-저효율'의 영어 학습 구조

□ 한국인은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많은 시간을 투자

- 2004~2005년 중 전 세계 토플 응시인원 55만 4,942명 가운데 한국인이 10만 2,340명(18.5%)으로 가장 많음
  - ·한국인의 평균 토플점수는 300점 만점에 215점으로 전 세계 147개국 중 93위이나 상대적으로 많은 수가 응시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 한국인이 평균적으로 영어에 투입하는 시간은 중학교~대학교까지 10년간 약 1만 5,548시간[2)]
  - ·영어유치원 등 조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총투입시간은 더욱 증가

□ 공교육을 제외한 영어 관련 국내 투자 비용만 1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 학원 및 개인 교습 등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어관련 사교육비가 연간 14조 원 이상
  - ·전체 학생(1,193.5만 명)이 영어학습에 매년 120만 원을 투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14조 3천억 원이 소요[3)]
  - ·인구가 한국의 2.6배에 달하는 일본의 영어관련 사교육 비용은 5조 원(6,283억 엔)으로 추산[4)]

- TOEIC, TOEFL 등 영어 평가에도 7천억 원 이상을 소비

- 영어 관련 국내 투자비용은 명목 GDP(806.6조 원)의 1.9%
  - ·교육예산(30.1조 원) 대비 국내 영어 관련 사교육비 비중은 47.5%

2) 한국영어교육학회·MBC, "2006 대한민국 영어 보고서", 2006.5.
3) 중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영어학습에 투자한 비용은 중학교 월 13만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월 20만원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월 1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한국영어교육학회·MBC, 상게서)
4) 失野경제연구소(日), "어학비즈니스 철저조사 리포트", 2006

· 정확한 추정이 어려운 영어 학습을 위한 유학·연수 비용까지 포함하는 경우 영어 관련 총 투자 규모는 더욱 확대

영어 관련 국내 투자 비용 추정치(2005년 기준)

항목	비용
사교육비(1,193.5만명×120만원)	14.3조 원
영어 평가비용(TOEFL, TOEIC)	0.7조 원
총 비용	15.0조 원

□ 투입한 시간과 비용에 비해 한국인의 영어수준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현실

-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 생활은 언어 장벽을 느낄 만큼 불편한 것으로 조사
  · 정치경제위험컨설팅(PERC)[5]이 아시아 1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국인의 영어 소통이 가장 힘든 나라로 한국을 지목

- 한국인 스스로도 영어 활용 능력 및 회화 능력이 높지 않다고 평가
  · 서울시가 2003년 말 시민 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영어로 의사소통하기가 어렵거나 거의 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74.2%에 달함[6]

경제 발전을 위한 인프라로서의 '영어'에 주목

□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어 구사 능력의 확보가 중요

- 고급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지식 네트워크에 참가하기 위해 영어 구사력은 필수
  · 한국 문화나 지식의 외부 확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

[5] Political and Economic Risk Consultancy Ltd.: 동아시아 국가의 경영환경 정보 제공 전문업체
[6] 서울시, "영어활용에 대한 서울시민 여론조사", 2003

· 한국은 요소투입과 투자유발형 성장단계를 거쳐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혁신단계'로의 진입이 절실한 상황

□ 본격화되고 있는 글로벌화 추세도 영어의 중요성을 강화

-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한계 돌파와 선진국 도약을 위해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
  · 한국은 국내 시장규모가 제한되어 있는데다 수출의 중요성이 높아 국제 비즈니스 성장 여부가 경제 발전의 관건

- FTA 등 개방이 본격화되면서 개인 차원에서도 세계의 인재와 경쟁해야 하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돌입
  · 전 세계적으로 시장개방과 자유화, 규제완화 등이 빠른 속도로 진전

□ 국민의 '영어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기'를 국가 차원의 경쟁력으로 격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

- 취약한 영어 구사력으로 인해 동북아 지식 허브로의 이행 지연 등 국가적인 기회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직시
  · 개인 차원에서는 한국인의 우수한 자질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인재 시장에 참가할 수 없는 원인으로 작용

- '국민의 영어 구사 능력'을 개인과 국가의 경제적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국가적 인프라로 인식하는 실용적 접근 필요
  · 영어에 대한 높은 '교육·학습열'은 한국이 가진 큰 자산
  · 이미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Ⅱ. 영어 투자의 기대효과

1. 비즈니스 기회의 증대

글로벌 기업 핵심 기능의 국내 유치

□ 동북아 지식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 연구개발, 금융 등 핵심 기능의 국내 유치가 필요

- 비용 절감을 위한 아웃소싱 기지가 아닌 핵심 기능이 이전되고, 고급 인력이 근무하는 지식집약형 허브를 지향

- 핵심 기능과 인력의 국내 유치를 통해 전 세계 지식 네트워크에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확대하는 효과

□ 영어에 능통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겸비한 인력 풀의 존재는 글로벌 기업의 핵심 기능 유치를 위한 필수 요건[7)]

- 취약한 영어 구사 능력이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진출을 저해
  - IMD의 평가에 의하면 한국인의 외국어 구사능력은 61개국 중 35위[8)]
  -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은 언어와 문화 장벽으로 인해 본사와 의사 소통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고 지적[9)]

- 2005년 말 현재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의 수는 홍콩 1,167개, 싱가포르 350개에 비해 서울은 11개에 불과[10)]

7) 재정경제부 동북아 경제중심추진위원회,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 2004.2
8) 국민의 외국어 구사 능력(language skill)이 기업의 요구 수준을 충족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로서, 다국어 구사 인구가 많은 북유럽 국가, 인도, 싱가폴 등이 상위를 차지(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6)
9) *Financial Times*, 2005. 2. 24.
10) 서울상공회의소, "민선4기 서울시에 바란다,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2006.7.

싱가포르의 영어 공용화

▷ 싱가포르는 1956년 영어를 4개 공용어(만다린, 말레이어, 타밀어) 중 하나로 지정한 이후 영어 사용을 꾸준히 추진하여 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입지를 확고하게 구축하는데 기여

- 행정부, 은행, 대기업 등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쓰도록 하여, 고급 직종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의 자발적 영어 학습을 유도
  - 영어구사 인구 : 1975년 27% → 2000년 71%
- 1987년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영어 사용을 의무화
- 1999년 이후 '표준영어'를 권장하는 캠페인을 벌여 글로벌 적응능력 제고

글로벌 경영체제의 고도화

□ 한국의 대표 기업은 글로벌 브랜드 창출에 이어 글로벌 역량을 배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

- 품질, 디자인, 브랜드 측면에서 명실공히 글로벌 제품을 탄생시켰으나 글로벌 전략을 수립, 실행하는 역량은 아직 부족

- 가치사슬상의 모든 활동이 최적의 효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적지에 전진 배치하는 글로벌 경영체제의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
  - 선진기업은 R&D, 디자인, 제조, 마케팅 활동을 각각 다른 지역에서 실행함으로써 글로벌 차원의 최적화를 추구

□ 글로벌 경영 체제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언어 장벽의 해소가 급선무

- 언어 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 미흡으로 현지화와 글로벌 통합 경영 모두에 애로 발생
  - 한국 기업의 현지법인 대부분이 주요 회의나 정보공유 등에서 영어보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11)]

[11)] 한국 5대 그룹에 대한 인터뷰 조사 결과(吉原·岡部·澤木, "韓國企業의 國際經營과 英語-現地調査 리포트", 神戶大學 經濟經營硏究所, 2000.6)

- 현지에 대한 권한 위임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경영철학이나 기업문화, 기업전략 등의 공유를 근간으로 하는 글로벌 통합 경영도 취약

- 과거 일부 대기업에서 현지 외국인을 CEO로 임명했으나 커뮤니케이션 문제 및 문화적 차이 등이 애로요인으로 작용[12)]
  · 현지 정부나 금융기관, 현지 고용인과는 원활한 관계를 유지한 반면, 한국인 주재원과는 언어 및 조직문화 등에서 갈등이 발생

松下(마쓰시타)電器의 영어 교육 강화

▷ 마쓰시타는 글로벌 전략의 고도화에 발 맞추어 2000년부터 사내 영어교육 및 승진 시 언어 요건을 대폭 강화
- 직종을 불문하고 TOEIC 성적 등을 기준으로 한 영어 능력을 간부 승진 시의 필수조건으로 설정

▷ 마쓰시타의 경영철학을 해외 지사의 사원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수준의 영어 능력을 가진 관리자 층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
- 연구개발, 마케팅, 생산 등 주요 기능이 해외로 이전되면서 공용어로서의 영어의 중요성이 부각
- 신제품의 세계시장 동시 出市 전략을 추구하면서 분산된 해외 거점에 대한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

▷ 글로벌 통합을 위해 비영어권 지사의 공용어를 영어로 통일

자료: 『讀賣(요미우리)新聞』(日), 2003.8.10.

2. 개인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 개인은 영어능력 향상을 통해 취업 및 승진과 자기계발 등 경쟁력을 제고

- 한국 국민의 영어학습 이유의 절반 이상(51.3%)이 승진이나 취업을 위한 것으로 조사[13)]

12) 吉原·岡部·澤木, 전게서
13) 한국영어교육학회 · MBC, 전게서

- 영어 구사능력 여부가 신규 대졸자의 취업이나 기존 근로자의 승진·연봉 등에 상대적으로 높게 반영
  -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승진·연봉 책정 시 영어능력을 반영하는 기업의 비율은 각각 88.5%, 70.8%를 차지[14]

□ 한국뿐 아니라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유럽 국가의 경우에도 개인의 영어 구사능력은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

- 스위스의 경우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평균 연봉차이는 남자 30.7%, 여자 21.6%에 달함[15]

- 스위스의 경우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전체의 1% 미만이며 대부분이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
  - ·스위스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만어 등 4대 언어가 주류

□ 영어 구사 능력은 글로벌 고급 인재시장에 참가하기 위한 기본요건

- 글로벌기업이 요구하는 영어 능력을 갖출수록 취업과 고위직으로의 승진 기회가 확대
  - ·한국인의 우수한 자질에도 불구하고 영어 능력 때문에 글로벌 인재시장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 국제화된 인력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 노동력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
  - ·글로벌기업 내의 한국인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교류 활동을 통해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 구축도 가능

[14] 한국영어교육학회·MBC, 전게서

[15] Grin, Francois, "English as Economic Value: Facts and Fallacies", *World Englishes*, Vol 20, No.1, 2001, pp. 65~78

3. 문화·지식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 창출

□ 높아진 문화 역량의 기반 위에 언어 장벽까지 극복할 경우 '한류'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한국 영화 '괴물'이 1,3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여 올린 수입이 9,600만 달러(910억 원)인 반면, 영어로 만들어진 '해리포터'는 9억 6,000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

□ 영어로 번역하거나 직접 영어로 제작한 음악 등 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여 국가 이미지를 제고

- 음악과 같은 예술작품의 경우 영어를 통한 전파력이 가장 강한 편
  - ·유럽의 주요 대중음악가는 영어로 된 음반을 취입하여 홍보 극대화 및 앨범 판매량 확대 등을 도모
  - ·ABBA(스웨덴)와 Scorpions(독일) 등은 영어로 된 음반을 제작하면서 자국을 넘어 세계적인 뮤지션 그룹으로 도약

ABBA의 경쟁력: 영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 스웨덴 출신 보컬그룹 ABBA는 1974년 유러비젼 송 콘테스트(Eurovision Song Contest)에서 영어로 改詞한 'Waterloo'로 데뷔
- 참가곡인 'Waterloo'가 스웨덴어로는 수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영어로 개사(자국 예선에서는 스웨덴 가사로 참여)

▷ ABBA의 음반은 대부분 영어가사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음반 판매량은 3억 5천만 장으로 추산
- ABBA의 전성기에는 스웨덴의 대표 브랜드인 볼보 자동차와 함께 자국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
- 최근 ABBA의 히트곡을 중심으로 구성된 뮤지컬 '맘마미아'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구가

- 한국인의 영어 능력 향상은 문화산업의 글로벌화 가능성을 제고

'한류'의 대표주자 '비'의 부가가치 창출
▷ 2006년 12월부터 6개월간 미국을 비롯한 6개국을 대상으로 공연 준비 중인 '비'는 총 1,060억 원의 공연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 - 공연에서 선보일 4집의 경우 총 14곡 가운데 11곡이 영어제목이며 5곡은 절반 이상이 영어가사로 구성 - 단기 수익 외에도 한국 문화 전파, 한국 상품 수요 증가 등의 효과도 높을 것으로 전망

□ 문학작품 등의 번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및 오역 등 국가적인 비용을 축소할 수 있음

- 한국의 문학작품 표현 중에는 정교하게 번역하지 않으면 본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
  - 한국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번역이 어렵기 때문

□ 영어 능력 향상을 통해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영어는 전세계 지식 네트워크의 중심 언어로서 여타 언어보다 학문적 파급효과가 막대

- '한계효용이론'으로 유명한 '오스트리아 학파'는 주로 독일어를 사용하여, 영미 주류 경제학계에 소개되기까지 많은 시차가 발생
  - 오스트리아 학파 이론을 주류 경제학계에 가장 많이 소개한 하이에크는 상대적으로 영어에 익숙

Ⅲ. 영어 투자의 효율화 방안

'고비용-저효율'의 영어 학습 구조를 개선

□ 영어 투자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투자효과 극대화'와 '투자비용 절감'의 두 가지 접근이 필요

- 같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더 높은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체계나 환경을 조성(투자효과 극대화)
  - ·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시간과 비용 투자 대비 영어 학습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영어 교습법을 개선
  - · 대학과 성인의 경우 영어에 대한 노출을 확대하고, 영어 사용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영어 학습에 소요되는 투자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투자비용 절감)
  - · 고급 영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일반인이 손쉽게 배울 수 있는 '글로비시(Globish)' 등 대안적 영어를 보급
  - · 자동번역 시스템 등 영어에 대한 투자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영어 투자의 효율화 방안

	방향	대안
투자효과 극대화	영어학습 성취도 제고	· 초중고교 영어 교습법 개선
	지속적으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대학內 영어사용 환경 조성 · 영어 '상용어화' 추진
투자비용 절감	쉬운 영어 보급	· 글로비시 보급 및 사용 확대
	영어학습 대체 투자	· 자동 번역 시스템 투자 확대

투자효과 극대화 ① : 초중고교 영어 교습법 개선

□ 영어를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사용하는 국가 가운데 영어 교육이 뛰어난 국가를 벤치마킹

-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고 있으나 영어로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가 대상

- 덴마크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부터 9학년(중학교 3학년)까지 6년간 공교육을 받을 경우 기본적인 영어 대화가 가능[16)]
  · 한국과 비교하여 영어 시간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성과를 실현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

덴마크의 영어 교육

▷ 초등학교 4학년(10살)부터 영어 교육을 시작하며, 향후 3학년으로 낮출 계획
- 일부 학교에서는 1학년부터 놀이, 노래 등을 활용해 영어 교육 실시
- 영어 시간은 4학년은 주 2시간, 이후 9학년까지는 3시간이지만, 다른 교과도 영어교재를 활용하는 등 각 수업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
- 각 학년별로 영어 성취도 목표를 설정하되, 구체적인 교육방법은 교사에게 일임

▷ 영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권에서 2년 정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총 교육기간이 보통 9~10년 정도가 소요될 만큼 많은 노력을 요구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한중일 고등학교 영어능력 비교조사 결과", 2006.5

□ 원어민 수준의 영어 강의가 가능한 우수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

-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검토 중인 '우수 영어교사 확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17)]

16) 덴마크는 IMD의 국민의 외국어 구사 능력 평가에서 룩셈부르크, 스위스에 이어 61개국 중 3위를 차지(IMD, 전게서)

17) 교육인적자원부는 2010년 이후 단계적으로 모든 영어교사가 영어로 수업이 가능하도록 집중적인 심화연수, 주기적인 단기 직무연수, 영어 능력 진단에 따른 맞춤형 연수, 영어 교사 임용 시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영어교사 집중 재교육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으며, 공청회를 거쳐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교육인적자원부, "주요 교육정책 현안", 보도자료, 2006.11.3)

- 우수 교원의 확보를 전제로 수학이나 과학 등 외국어 이외의 과목을 한국어와 영어로 반복 강의하는 등 영어학습의 범위를 확대

모 사립초등학교의 영어 몰입(immersion)교육주) 사례
▷ 영어 교육 시간(예) : 1학년 영어 9시간, 수학·과학 각 2시간, 창의력 계발 1시간 등 주 14시간 ▷ 수업 방식 : 한국어로 교과 과정을 배우고 영어로 복습하며,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가 동시 담임을 맡아 한 학급을 두 그룹으로 나눠 번갈아 수업

주: 영어 몰입교육은 각종 교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언어교육을 의미

□ 학생들이 영어 학습 이외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영어 이야기 발표, 영어 연극 등 관련 행사를 확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컴퓨터 과목의 경우 영문 타자 연습 및 영문 인터넷 검색 등의 교육을 통해 영어 학습을 보완

□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영어교육 방법을 개발하여 영어교육의 효과성을 제고

- 한국인에게 영어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영어권 사람이 모국어를 배우는 방식과는 달라야 함
  -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TEFL) 역시 한국인을 위한 영어교육과는 차이[18)]
  - 나라마다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데 발생하는 어려움이 각기 다를 수 있음

[18)] 한학성, 『영어공용어화, 과연 가능한가』, 책세상, 2000.

투자효과 극대화 ② : 대학의 영어 환경 정비

□ 대학의 경우 초중고교와는 달리 영어의 학습 보다는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

- 초등학교부터 영어교육을 받아 온 신세대가 지속적으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 언어는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

- 단기적으로는 전공별 영어 강의의 비중을 높여서 영어에 대한 노출을 확대

- 장기적으로는 대학 자체의 '안으로 열린(inbound) 글로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 · 특히 외국인 유학생을 대대적으로 유치하여 대학 캠퍼스를 多언어·多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場으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
  - ·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우수학생에 대한 국내 취업 지원 등 한국 유학의 매력을 제고

고려대학교 국제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 현재 전체 강의의 31%인 영어 강의 비율을 2010년까지 60%로 높일 계획 (경영대의 경우 45%)
▷ 외국대학과의 교류를 2003년 200개교에서 2006년 500개교로 확대
▷ 매년 전교생의 20%인 1,000명을 교환 학생으로 파견
▷ 강의의 100%를 영어로 진행하는 국제여름학기에 교포학생을 포함하여 외국에서 800명 참여

자료: 고려대학교 어윤대 총장의 문화일보 인터뷰(2006. 7. 20)

□ 기업의 '지역전문가' 제도와 같은 대학생 해외 파견 제도를 활성화

- 해외 거점을 보유한 기업과 협력하여 해외 파견 인턴십 제도를 운영

· 해외 대학과의 교환학생 제도와 마찬가지로 해외 인턴십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투자효과 극대화 ③ : 미래에 대비하여 영어 '상용어화' 추진

□ 영어의 상용어화(常用語化)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창출과 국민의 영어 능력 향상을 동시에 추구

- '상용어화'란 제한된 지역이나 장소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
  · 외국인 등 영어사용자에게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한국인에게는 영어에 대한 노출도를 높이는 효과

- '공용어' 개념에 비해 느슨한 '사회 공통어'의 의미[19]
  · 영어 '공용어화'는 모든 법령과 공문서의 영문화, 외국어 과목을 제외한 모든 교과서의 영문화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

□ 경제 특구와 같은 특정 지역을 '영어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영어를 공용어 수준으로 사용

- 영어로 제반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구비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서의 조건을 충족
  · 영어로 이용이 가능한 관공서, 병원, 학교 등 사회인프라를 구비하고, 외국기업을 위한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

- 한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과의 자연스러운 대면을 통해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특구에 입주한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한국인 인턴사원 고용을 의무화하고,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19] 공용어(公用語)란 한 나라안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언어 또는 국제회의나 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언어를 말함. 일반적으로 공용어는 다 언어국가에서 언어 문제로 갈등을 빚을 경우 지정되는 경우가 많음(김경일, "서울의 영어 상용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서울도시연구』, 2004.3)

□ 영어 상용어화는 영어 실력이 향상된 신세대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

-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시작된 1997년 이후 학생의 영어 실력이 전반적으로 향상
  - 2004년 실시된 고등학생 영어능력 평가에서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배운 고1 학생이 그렇지 않은 고2 학생보다 우수[20]

- 영어 실력이 우수한 신세대가 사회의 주역이 되는 10~15년 후에 대비하여 선행 투자
  - 글로벌 기업에게는 우수 인력의 활용을, 개인에게는 영어 능력을 살린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
  - 상용어화 정착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

비용 절감 ① : 글로비시(Globish)[21]를 활용하여 영어격차 해소

□ 영어 상용어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어 격차(English Divide)[22]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모든 국민이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필요는 없음
  -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싱가포르에서도 성인의 약 70%, 필리핀은 약 15%, 인도는 2~10% 정도만이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

- 현재의 영어교육으로 인해 금전적, 정신적으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영어 구사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영어 관련 비용을 줄이면서 영어 격차도 축소할 수 있는 방안

[20] 교육인적자원부, 전게서
[21] Global과 English의 합성어
[22] 영어 격차(English Divide) : 영어와 관련된 투자의 차이로 영어 실력 차이가 벌어지고, 영어 실력 차이가 다시 빈부 격차로 나타나는 현상

□ '글로비시' 사용을 확대하여 고급 영어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단으로 활용

- '글로비시'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도 손쉽게 익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간편형 영어
  · 프랑스의 장 폴 네리에르가 비영어권 국가에서도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

- 글로비시는 1,500단어 범위 내에서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어를 구사하는 것이 목적
  · 매일 한 시간씩 6개월 정도의 시간이면 배울 수 있다는 용이성이 최대의 장점

- 모든 한국인이 글로벌 표준영어를 능통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외국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까지 영어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
  · 대부분은 외국인과 오랜 시간 동안 대화하거나 영어로 직접 글을 쓸 필요와 기회가 없음

□ 의사소통의 수준을 넘어 글로비시를 기업회의, 대중연설, 국제회의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글로비시를 개발

- 한국인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하도록 한국형 글로비시를 독자적으로 연구

- 이를 위해서 현재 1,500단어 정도인 글로비시의 단어 수를 중고등학교용 영어 단어 수준까지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 현재 글로비시에 따르면 'nephew'(조카) 대신 'child of my brother'(형의 아이)로 표현

□ 영어체험마을 확대 및 무료 영어교육 강화도 추진

- 일상생활과 대화를 영어만으로 하는 영어체험마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실용적인 영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

- 성인의 경우 지자체 등이 인터넷을 통해 무료, 또는 저가의 영어교육을 실시하여 영어 노출 기회를 확대
  · TV 영어 뉴스나 영화 프로그램의 경우 자막 방송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에 대한 노출이 높아지도록 유도

비용 절감 ② : 자동번역시스템에 대한 투자 확대

□ 세계 각국은 인터넷 활성화와 언어처리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동번역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경쟁적으로 확대

- 25개국으로 구성된 EU가 자동번역시스템 개발에 가장 적극적이며, 프랑스어, 독일어 등은 이미 80~90% 이상의 영어 번역률을 달성

- 미국도 인터넷 컨텐츠의 대부분은 영어지만 인터넷 사용자의 65%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언어 번역기술에 큰 관심
  · 미 국방부는 중동 등 세계 각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용으로 각국 언어를 '양방향'으로 자동 번역하는 시스템을 개발

미군의 휴대용 음성 통역 시스템

▷ 미군은 휴대용 자동통역기인 프레이즐레이터(Phraselator)를 개발, 사용 중
-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미군 부대에서 총 2천 대 가량이 사용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쓰나미 현장에서도 사용됨

▷ 뉴욕주 등 미국 11개 주의 교정 공무원, 경찰 등이 시험 사용하고 있으며, 병원 응급실 용도로 평가가 진행되는 등 민간용으로의 확대도 추진 중

자료: 한국과학기술정보원, "해외과기동향", 2005.3

□ 한국어 자동번역시스템 관련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하여 영어 투자비용 및 통·번역 관련 비용을 절감

- 자동번역시스템 개발을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로 추진
  - ·한국어와 어순이 다른 영어를 자동번역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으로서 시스템 개발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
  - ·자동번역 시장 규모가 2005년 말 현재 39억 원에 머무는 등 아직 기술이나 투자가 시장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23)]

- 문어체 위주의 자동번역 기술에서 음성인식, 기계번역, 음성합성기술을 포함하는 구어체 처리기술까지 번역수준을 향상
  - ·위성통신 및 인터넷 방송의 자막처리, TV 드라마 자동번역 서비스까지 구현

- 영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영문 정보나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

□ 'Any Time, Any Place' 에 'Any Language'의 개념이 부가된 유비쿼터스 환경을 창출하여 IT 및 디지털 컨텐츠 산업 성장에도 기여

- 한국의 디지털 컨텐츠나 지식의 외부 확산에 가장 큰 걸림돌인 언어 문제를 해결

- 통신기기나 컴퓨터의 핵심 구성요소로 도입하여, IT 하드웨어의 경쟁력을 높이는 도구로도 활용

23)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국내 음성/언어정보산업 시장규모", 2005.12

◆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금융동향 >

		11. 07	11. 08	11. 09	11. 10	11. 13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938.5	935.2	936.6	934.1	935.1
	엔/달러(뉴욕시장)	118.22	117.63	117.84	117.80	117.54
금리	회사채(3년AA-, %)	5.04	5.09	5.02	5.00	5.02
	국고채(3년, %)	4.73	4.78	4.70	4.68	4.70
주가지수(KOSPI, 종가)		1,387.4	1,380.1	1,399.4	1,395.7	1,396.7

< 실물동향 >

(전년동기(월)비, %)

	2004년	2005년	2006. 6월	7월	8월	9월	10월
GDP성장률[1]	4.7	4.0	..	..	4.6	..	..
민간소비	-0.3	3.2	..	..	3.9	..	..
설비투자	3.8	5.1	..	..	9.6	..	..
산업생산 증가율	10.2	6.3	10.9	4.5	10.9	16.3	..
평균가동률	80.4	79.8	82.0	76.8	80.7	84.1	..
실업률	3.7	3.7	3.4	3.4	3.4	3.2	..
실업자(만명)	86.0	88.7	81.9	82.3	80.7	76.6	..
전국 어음부도율	0.06	0.04	0.02	0.02	0.03	0.03	..
소비자물가 상승률	3.6	2.7	2.6	2.3	2.9	2.4	2.1
수출(억달러, FOB)[2]	2,538.5	2,844.2	279.5	258.2	273.1	297.4	282.8
(증감률)	(31.0)	(12.0)	(17.9)	(11.1)	(17.0)	(21.3)	(11.5)
수입(억달러, CIF)	2,244.6	2,612.4	259.8	255.1	270.4	278.5	257.4
(증감률)	(25.5)	(16.4)	(22.0)	(18.6)	(22.9)	(22.6)	(13.6)
경상수지(억달러)	281.7	165.6	9.4	-3.9	-6.4	13.7	..
외환보유액(억달러)	1,990.7	2,103.9	2,243.6	2,257.2	2,270.2	2,282.2	2,294.6
총대외지불부담[3] (억달러)	1,722	1,900	..	..	..	..	..

1) 한국은행 2006년 10월 25일자 '2006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2) 산업자원부 수출입 동향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3)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기준, 분기별 발표.